

새로운 회원을 소개합니다

월일	이름	나이	성별	지부	월일	이름	나이	성별	지부	월일	이름	나이	성별	지부
7/4	신현진	30	남	북번	7/20	서창원	20	남	전주	7/26	서재성	35	남	광주
"	함소영	15	여	북번	7/22	문순자	22	여	목포	"	김광석	33	남	광주
"	오중근	22	남	북번	"	강영우	18	남	목포	"	김경애		여	대구
"	이영수	22	남	북번	"	이영우	18	남	목포	"	윤경숙		여	대구
"	이영순	25	여	청운	"	이영환	19	남	목포	7/26	김영진	31	남	산주
"	조인식	58	남	영등포	7/25	장효심	51	여	동구	7/28	김연선		여	대주
"	김무조	29	남	영등포	"	이한옥	16	여	동부	7/31	김경현	36	여	광주
"	김정희	32	남	영등포	"	최정환	20	남	부산	"	안혜련	18	여	광주
"	김명환	21	여	영등포	"	박종관	23	남	마산	"	김진영	16	여	광주
"	김휘나	27	여	영등포	"	정재국	17	남	마산	"	김봉석	12	남	주주
"	홍미경	10	여	서부	"	이정남	17	여	마산	8/1	백영자	9	여	주주
"	전영식	17	남	서부	"	유수정	17	여	동부	"	현봉영	22	여	춘천
"	권영모	19	남	동부	"	김현아	20	여	동부	"	조영자	59	여	번번
"	정찬식	21	여	동부	"	백준옥	29	남	인등	"	강옥자	40	여	북번
"	제숙원	22	여	동부	"	양재유	29	여	영등	"	최익순	30	여	북번
"	강윤애	16	여	동부	"	최진일	61	남	영등	"	임희주	25	남	동부
"	윤신란	16	여	동부	"	이광일	29	남	북번	"	정재병	25	여	동부
"	이형수	25	남	동부	"	조원구	17	남	북번	"	권영대	21	남	동부
"	이박자	22	여	성북	"	김기용	45	남	청운	"	백선자	15	여	동부
"	고동준	20	남	성북	"	김금재	41	여	청운	"	백이덕	23	남	동부
"	공수영	23	남	신촌	"	김경화	16	여	청운	"	이홍욱	19	남	동부
"	박칠준	30	여	인대	"	김경기	13	남	청운	"	강혜권	15	여	동부
"	백함숙	21	남	여대	"	조재호	21	남	청운	"	이경남	21	남	성북
"	홍희	23	남	여대	"	유광수	○	남	대전	"	표경애	15	여	청운
7/11	홍남	20	남	대산	"	김이옥	○	남	대전	"	표이우	16	여	삼청
7/18	조래	30	남	마산	"	이정낙	21	남	광주	"	조	23	남	서
"	이화	19	여	마산	"	최현	17	남	광주			9	남	이상
7/19	김주	22	여	군산			18	남	광주					89명



여섯 가족 하와이 신전 방문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공식 방문하여 신전 의식을 받게 되는 여섯쌍의 성도들이 지난 7월 31일 하와이로 출발하여 8월 18일 모두 귀국하였다. 일본 중앙 선교부의 153명과 함께 전세 비행기로 출발했던, “복음의 법과 의식을 지키므로써 구원을 받음을 믿는”이들은, 그곳에서 조상과 자신의 영생을 위해 필요한 의식을 받고 귀국하였다.



차 중환 형제 교환 교수로 도미

중앙 지방부장으로 봉사하던 차 중환 형제가 지난 7월 31일 2년간의 연구를 위해 미국으로 떠났다.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과학 교육과장으로 봉직했던 그는,

미국 국무성 초청 교환 교수로 부인과 함께 출발하였는데 그는 교회 대학인 브리감 영 대학교에서 연구생활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3년 10개월을 중앙 지방 부장으로 봉사한 그는 재임 기간중 모든 역원들이 자기 일을 찾아 활동하므로 해서 회원들이 보람찬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봉사할 것을 강조해 왔었다. 이학 박사 학위, 결혼, 자녀 등 모두가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하므로 얻을 수 있었다고 간증했던 그는 하와이 신전 방문 일행과 함께 출발하여 의식을 받은 후 계속 남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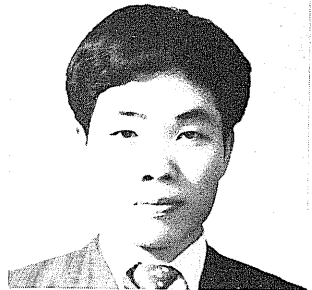


홍자매 선행

청운지부의 홍 은표 자매는 지난 8월 8일 대한 건축협회 회장 김 창현 씨가 잃은 5백만원을 찾아 주었다. 주일학교 서기로 있는 그는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했는데 주위 사람들은 그를 “미쓰 500”이라 부르고 있다.

김 형제 선교사로

호남지방부 서기로 봉사하던 김 동환 형제는 지난 7월 11일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마산에서 선교사업중이다. 조그마한 키의 그는 떠나면서 “하늘에도 아버지가 계심을 믿고 있는 나의 간증을 전하겠다.”고 했었다.



제3회 청소년 대회 성료

선교부 산하의 청소년들이 함께 모여 그들 연령이 필요로 하는 건강과 협동과 신앙을 심어주기 위한 제3회 청소년 대회가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1일까지 선교부 구내에서 수원을 제외한 전국 20개 지부 및 지역에서 385명이 참가했었다. 활동은 다음과 같다

29일. 대편성에 이어서 K.B.S. 공개방송 노래고개 세고개, 남부 및 호남의 장기대회, 캠프 노래, 영적인 말씀 등의 순서를 가졌다.

30일. 교리 퀴즈와 “요들 쏙”을 감상한 전원은 8대의 버스에 분승하여 현충사의 관광에 들어갔다. 무한히 계속되었던 현충사에서 의 잔디나 고속도로는 밝음과 전진하는 우리 자신을 일깨웠다. 저녁에는 선교사의 밤, 무도회가 열렸었다.

31일. 오전, 오후로 나뉜 모의 올림픽은 모든 청소년이 참가하는 소운동회였으며 저녁의 캠프 카니발은 연극, 로드 쇼로 키워진 재능이 기상천외로 나타나 온통 웃음바다였던 저녁이었다. 속개된 캠프 화이어, 캠프 무도회 등은 밤을 지새며 신앙을 토의했던 피로와는 아랑곳 없는 즐거움과 협동과 형제애를 더하는 밤이었다. 기도와 국기 게양으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났던 하루하루는 상호 부조리 자매님들의 즐거운 식단을 위한 열의 있는 봉사와 함께 성도애를 키워주는 대회였다.

8월 1일. 대회에서 받은,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를 63명이 간증했던 피약별의 간증회는 선교부장님과 이 호남 형제의 영적인 말씀을 듣는 시간이기도 했다. 이번 대회에서 서부지부는 참가 모범지부로 트로피를 받았다.

